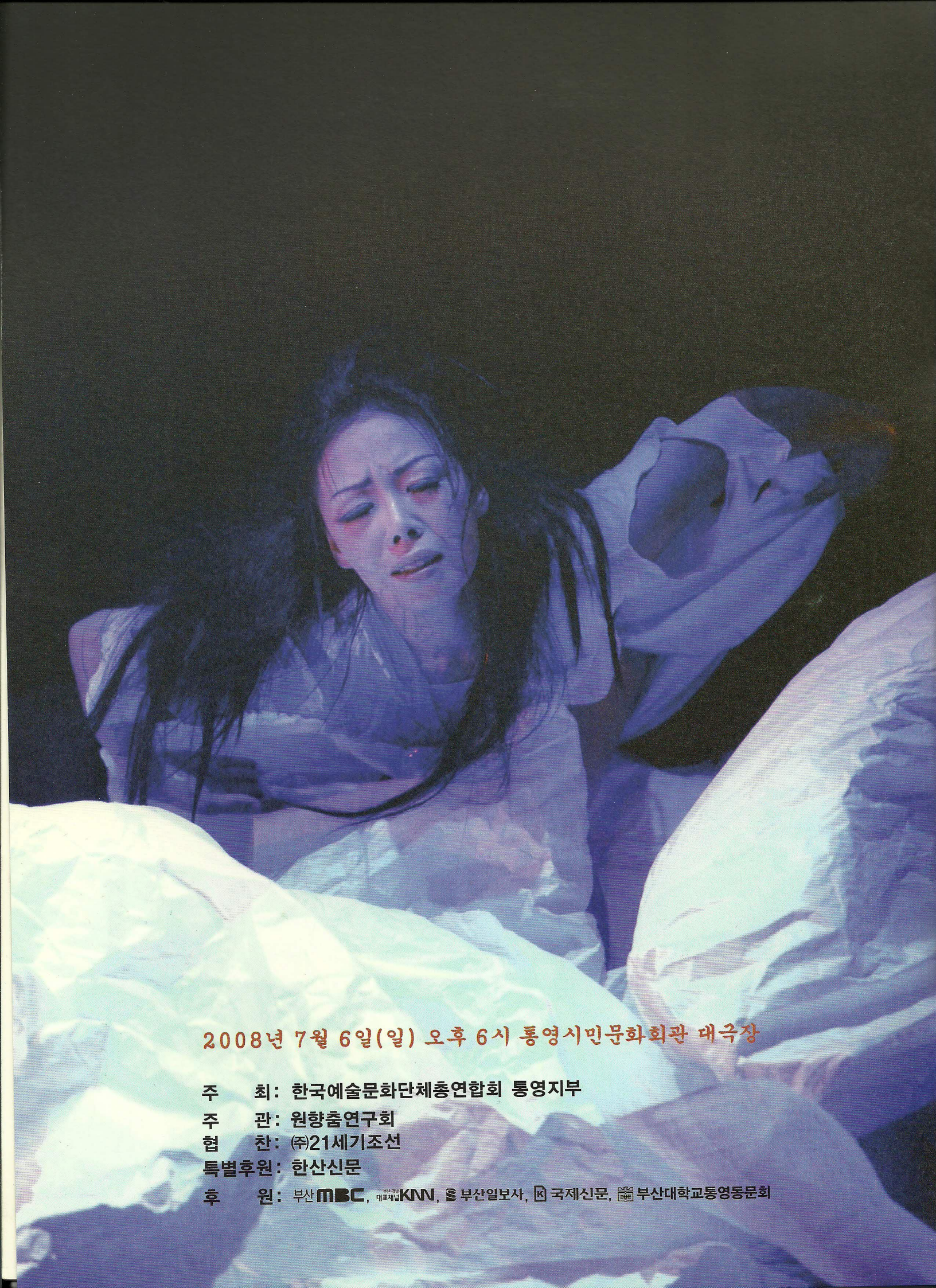


# 몽황되어 춤을 추리

원향(遠香) 엄옥자 선생을 노래하다.





2008년 7월 6일(일) 오후 6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통영지부

주 관: 원향춤연구회

주 협 찬: (주)21세기조선

특별후원: 한산신문

후 원: 부산 MBC, 부산광역시 KNN,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통영동문회



# 봉황되어 춤을 추리

원향(遠香) 엄옥자 선생을 노래하다.

## 1. 바다도 춤을 춘다.

- 유년의 꿈은 피어나고

## 2. 통영북소리, 내 사랑 승전무

- 청춘의 숨결이여

## 3. 봉황의 비상

- 내 눈이 열리고



## STAFF

•총괄감독: 엄옥자 •대본: 김정자 •예술감독및안무: 변지연 •무대감독: 김미숙 •연출: 김휘광 •진행: 김해성  
•홍보: 이경림 •조명: 이광성 •영상: 이은아 •음악: 신영순, 이광진 •의상: 홍보균 •분장: 소인경 •사진: 이동현



정 해 룡(통영예총회장)

통영이 낳은 또 한 분의 위대한 예술인, 엄옥자님의 교단생활을 총 정리하는 고별공연을 이곳 고향 시민 문화회관에서 개최하게 됨을 통영 전 예술인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통영은 문학이면 문학,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조각이면 조각 그 어느 것 한 분야에 있어서도 서울에 끌리거나 밀리는 것 없이 당당히 맞서왔고 오히려 그 전문분야를 이끌고 주도해 온 전통의 예향입니다.

무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학에 불멸의 여성, 박경리가 있었다면 무용에는 북극성과 같은 엄옥자라는 존재가 밤하늘에 우뚝 솟구쳐 올라 그녀의 춤사위 동작 하나하나마다 관중의 넋을 놓게 하였고, 그녀의 치마폭에서 이 땅의 춤꾼들이 배출되었고, 그녀의 눈길 가는 곳곳마다 무용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했습니다.

청마와 박경리와 김용익과 김춘수, 김상옥이 통영을 상징하고 윤이상이 통영을 대표하고 전혁림이 통영을 의미한다면 엄옥자는 통영을 형상한다고 하여도 하등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통영의 유 무형의 보물이고 보석입니다. 보물과 보석은 아끼고 가꾸고 길이 길이 보존할수록 그 가치는 빛나고 세상의 기쁨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보석을 흠집 내고자 한다고 하여도 그 가치가 손상되고 파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의 어느 철부지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랬는지 청마라는 보석에 친일이라는 흠집을 내고자 통영의 얼굴에 침 뱉는 짓을 했다가 만천하의 비웃음을 산 일이 있었는데 두 번 다시 통영 땅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통영의 푸른 비취옥과 같은 보석인 엄옥자님이 일생의 혼이 깃든 정든 교직을 떠나는 것을 기념하는 이 무용회가 그녀의 무용의 끝이 아니라 통영무용 발전의 출발을 알리는 밑거름이라는 좋은 징조임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겨우 인생의 완숙기에 접어든 그녀도, '나이 94살도 젊다'며 아직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는 전혁림 선생의 열정을 본받아 통영의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엄옥자님의 앞날에 하느님의 축복과 가호 있으시길 빌고 또 빕니다.



## 원향(遠香), 멀리까지 확산하는 예술과 인간미



정 상 박(동아대학교 명예교수)

원향 엄옥자교수가 이순을 맞이하여「칼의 노래를 넘어서」라는 기념비적인 무용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에는 정년을 앞두고 「봉황되어 춤을 추리」라는 무용극을 공연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자신의 춤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한 자전적인 것이라고 한다. 봉황은 전설적인 상상의 새다. 예기(禮記)에 네 신령스러운 동물(麟鳳龜龍)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봉황은 오색찬란한 깃을 가지고 맑은 울음소리 멀리 메아리치면 온 세상이 평화롭다고 한다. 이런 봉황은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태평무를 추는 원향이 지향하는 상징이다.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이지 않고 천년 만에 한번 열리는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산 벌레를 입에 대지 않고 산 풀을 밟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원향이 지닌 무용가로서 정신과 정감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봉황이 춤을 추면 평화가 온다고 한다. 원향이 의식적(儀式的)이며 연례적(宴禮的)인 승전무를 추는 것은 승전의 기쁨 뒤에 오는 평화를 희구하는 행위다. 원향은 평생 봉황래의(鳳凰來儀)의 춤을 춘 것이다.

이제 원향은 교수로서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고 새처럼 훨훨 높이 날고자 한다. 아무리 천하영재를 얻어 가르치는(得天下英才而教育之) 교수직이지마는 예술가에게는 엄청난 구속이 될 수 있다. 옛말에 봉황제노(鳳凰在笮)라고 하였듯이 봉황은 새장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예술가에게는 모든 것에서 벗어난 정신의 자유, 시간의 자유가 필요하다. 원향은 이제 무용가로서,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거칠 것 없이 비상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공연은 과거를 정리하는 의도 못지않게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무용가 원향을 존경하는 이유도 원향이 이렇게 정년 뒤에도 춤추겠다는 영원한 현역이기 때문이다. 지중해 키프로스섬 근해의 거품이 비너스를 탄생시켰다면, 다도해 통영 앞바다의 물결과 아름다운 풍광과 유구한 역사가 무용가 원향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소질과 환경만으로 오늘날의 원향이 된 것이 아니다. 원향이 춤에 미쳐서 항상 혼신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대성을 이룬 것이다. 원향은 육신을 깎아 영혼의 춤을 추는 예술가다. 실기 전공교수도 선만 넘기면 앉아서 손가락만 놀리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원향은 직접 서서 땀을 흘리며 무대에 선다. 밤 11시에 원향에게 전화하여도 연습실 아니면 연구실에서 받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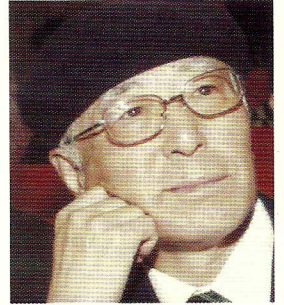
내가 인간 원향을 부러워하는 것은 주위에 항상 유능한 제자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공연도 죽마고우인 김정자 교수가 대본이 되는 시를 써 주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발 벗고 나섰다. 사람이 모여려면 그 사람의 가슴이 넓고 푸근해야 한다. 원향을 보면 “열두 폭 치마”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아랫사람의 치마까지 감싸는 아량, 벼의 잔잔한 일까지 챙기는 따뜻한 손, 손윗사람을 정성껏 섬기는 예의 등은 원향의 인간미 넘치는 미덕이다.

엄옥자 교수의 아호 원향(遠香)이 멀리서 느낄 듯 못 느낄 듯 풍겨오는 향기 같은 한국적인 은근의 미감(美感)을 의미하고 스스로 원향이 행하되 들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 때문에 호를 삼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엄옥자 교수의 정년을 즈음하여 그의 행적과 영향을 되돌아보니 소극적인 풀이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아호 원향은 멀리 풍겨나가는 향기, 멀리 넓은 공간까지 확산하는 그의 인간적 향기와 예술적 감동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옳다는 생각이 든다.



## 遠香 춤판 <鳳凰의 飛翔>

嚴玉子教授 停年紀念 公演에 붙인 글



정 순 영(鄭 漢) (춤평론가)

봉황이란 상서로운 상상의 새이다. 닭의 머리, 뱀의 목, 제비의 턱, 거북의 등, 물고기의 꼬리모양, 몸과 날개 빛은 오색이 찬란하며 오음(五音)의 소리를 낸다.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임금이 계신 곳을 봉황루(鳳凰樓), 영산회상곡(靈山會相曲)에 맞추어 추는 춤을 봉황무라 했으니 원향의 '봉황의 비상'은 바로 교수 춤꾼인 그의 제2의 인생출발이란 정년기념 공연에 붙인 이름으로서 멋있다. 무용가교수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60이면 이순(耳順)이고 70이면 종심(從心)이라 했다. 이제 종심의 차례다. 하고 싶은 일의 중심을 따라 펼 차례이다. 얼마나 자유로운가. 원향 엄옥자 교수는 부산대학교에 31년 6개월간 체육교육과에 재직하면서 08년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누가 말했던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본시 춤 교수였으니까 춤을 마감할 필요는 없다. 춤은 계속이다. '기념 대 춤판' '봉황의 비상' 이라 이름 한 것은 무리가 없다.

근자에 본 그의 "명인명무전(40회)"이나 "원향춤 수련회(20회)"에서의 모습은 아직도 짱짱했다. 노익장(老益壯)이 분명했다. 정년을 70으로 늘여도 될 것 같다. 특히 한국 전통춤은 힘보다 곰삭은 멋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잠시 그의 꽃 시절 해외공연에 대하여 볼때 1990년도부터 그는 '엄옥자한국민속무용단'의 이름으로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홍콩,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중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 벨기에, 브라질, 그리스, 터키 등 전 세계 어디든지 드나들며 예술인 인생의 꽃을 피웠고 문화사절, 문화외교에 동참했다.

국내 활동은 '원향춤 수련회' 20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참가 40회, 논문 및 저서 40여권,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로서 한국 춤의 대중화 및 저변확대에 앞장 서왔다.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2005년에 부산시 문화상, 2003년 PSB 문화 대상 수상. 무성(茂盛)한 시절은 가고 조용히 관조(觀照)할 미래가 다가온다. 타고 남은 재(灰)불을 뒤지는 선인들의 화로(火爐)의 온기(溫氣)와 같은 여유로운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필자가 가까이 본 그의 춤 공연, 2003년11월 부산문화회관에서 어머니와 세 아들의 죽음과 함께 가는 무장(武將)의 표정을 처(妻) 방 씨의 시각에서 더 큰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한 이순신장군 주제의 <갈의 노래를 넘어서>, 또 하나 2002년12월 부산문화회관, 김온경, 김정녀, 김매자 등 거목(居木)들과 함께 격의 없는 서로의 오랜만의 무대 <원향 춤>공연이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에 초대된 DADA(대구예술무용협회)공연이다. 명인명무 무대의 시본(示本)만이 아니라 창작분야 무용극의 창작무대까지를 두루 보았다.

이번 무대 또한 무용극형태로 그의 생애를 김정자 시인이 압축한 시 대본으로 무용극을 보여준다. 절제된 춤 속에 미분(微分)의 미학과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는 자존파(自尊派) 춤꾼 모습, 부디 북채 놓지 말고 봉황되어 춤을 추시라. 무단(舞壇)의 청렴하고 위대한 선인이기를 바란다.



## 다시 춤꾼으로 태어나는 날



김 백 봉(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딩~ 덩~

未知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선율은 춤꾼의 몸을 깨우고 마음도 흔든다.  
하얀 비선발에 힘이 들어가고 양팔을 휘~이 들어 공기를 가득 품으면,  
무대 위엔 한 마리의 봉황새가 춤을 추고 있다.  
높은 귀퉁의 봉황이 그려내는 動線은 관객을 강하게 끌어들인다.  
유장하다가도 격정적인 춤에 바다도 일렁거리고 하늘도 춤을 춘다.

정년, 65세! “나는 이제부터 진정 예술가로 살 수 있다며” 자유를 외쳤었다.  
제자들도 친구들도 욕심이라고 했다.  
뭘 더 바라냐고……

지금 인생 80년 하고도 두 해가 지났다.  
욕심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했다지만 아직도 내 영혼은  
최승희 선생님을 만나러 가던 14살에 닿아있다.  
TV 앞 거실 쇼파에 힘없이 누워있다가도 춤을 추는 상상을 하니  
등이 근질근질하고 가슴이 벅차다.

욕심! 춤을 출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살아야 했기에 춤을 추고 춤을 추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춤꾼의 고독한 운명을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엄옥자가 애달프고 그래서 고귀하다.

교직의 정년을 맞이하는 공연이지만 예술가에게는 정년이란 있을 수 없다.  
그간 쌓아온 것을 바탕으로 소중한 무대를 가짐에 축하를 드리며,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 때  
“계속 정진하고 춤과 함께 발전해서 더 큰 뜻을 이루길…” 부탁 했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었으니,  
나 자신도 영광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다.



---

따뜻하고 아름다운 생의 감동으로 ...



원향 엄옥자(부산대학교 교수)

오늘 새벽 부시시 눈을 뜨니 창 밖에 파란 하늘이 유난히 그리움을 일깨웠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사바의 풍진 속에 지친 내 영혼이 그래도 아직 미완의 소원으로  
남아 있는가 봅니다.

지난 세월, 효원 동산에 내 깃발을 꽂고 젊음과 지성과 정의가 넘쳐흐르는 광장에서,  
인간의 간지와 모순과 횡포마저 모두 함축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로지 멀고 먼 삶의 향기와 어우러지고자 하는 가락으로 내 영혼을 바쳐 생명의 춤을  
추고 또 추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은 내 삶의 역정(歷程)을 불길 토하듯 그 몸짓으로 무화(舞化)한 것으로,  
은혜 베푸신 모든 분께 드리고 싶은 정성의 소산입니다.

피카소는 예술은 슬픔과 고통의 산물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오직 이 한 길에서 원향춤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이 공연이 여러분과 함께, 잠시나마 아름다운 봉황의 꿈이 되어 따뜻하고 아름다운  
생의 감동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



## 원향 엄옥자 교수 정년퇴임 기념 대충판 공연취지 및 주요업적 소개

금번 공연은 원향 엄옥자 교수가 부산대학교에 31년 6개월간 체육교육과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올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그간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고 앞으로 무용가로서 한국 춤의 발전을 위하여 제2의 인생을 출발하기 위한 기념 공연입니다. 공연의 주요 내용은 엄옥자 교수가 춤을 추게 된 동기로서 어린시절 고향인 통영에서의 춤에 대한 사랑을 키웠던 시절부터 오늘의 엄교수를 있게 한 승전무를 통해 중년의 삶이 더욱 충만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정년퇴임을 앞두고 세월의 무게와 빛깔을 가늠할 수 있는 혜안으로서 그 동안의 춤인생을 정리해 보는 공연입니다.

간단하게 그간 쌓아온 원향 엄옥자 교수의 주요업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향 엄옥자 교수는 통영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이며,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로서 통영의 문화재 종목인 승전무를 발굴, 계승, 보급시키는데 노력해 온 엄옥자 교수는 1985년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출신인 중, 고등학교 무용교사로 구성된 연무회를 창단하여 부산의 춤문화 발전을 위하여 주력해 왔으며, 이후 1990년도부터 엄옥자 한국민속무용단을 창단하여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홍콩,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중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 벨기에, 브라질, 그리스, 터키 등 전 세계에 우리의 춤문화를 보급하는 문화 사절단으로서 춤을 통한 문화 외교에 앞장 서 왔으며, 올해도 스위스 축제를 통해 한국춤의 우수성을 유럽인들에게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의 호를 딴 '원향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후학들에게 원향춤을 보급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총 20회의 원향춤 수련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주임교수로서 일반인들에게 우리 춤의 아름다움과 우수함을 일깨워주고 한국춤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학점은행제로 승전무반을 개설하여 승전무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고 전승시키고 있습니다.

엄옥자 교수는 1997년부터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과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우수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2005년에는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하여 부산이 사랑하는 예술인으로 인정받았으며, 2003년에는 PSB 문화대상을 수상하고 그 해 제8회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개·폐회식 총괄안무를 맡아 대통령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2005년에 미국 L. A 시장 감사장과 L. A 타임즈에서 '한국의 혼을 담은 명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중국 호캉우트 국제민속무용 페스티벌 우수연출상과 특별상 개인 연기상과 폴란드 축제 위원회 감사장을 비롯하여 국내·외적으로 40여 회의 표창과 공로패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평생을 우리 춤과 함께 해 온 엄옥자교수는 현재까지 40여회의 한국의 명인 명무전 공연과 엄옥자 교수 이순(耳順)기념 공연인 【칼의 노래를 넘어서】를 비롯하여 200여회의 국내공연 그리고 2007년의 터키공연을 비롯한 40여회의 국외공연을 통하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춤꾼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춤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후학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2002년-2005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 사업인 '아시아지역 무속의례에서 연희된 춤 조사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4년에는 문화재 연구소의 "승전무" 영상기록, 책 발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승전무 영상기록과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한·일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통해 승전무의 형태와 빛깔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가졌으며, 현재는 정년퇴임에 즈음하여 승전무를 총 집대성한 저서를 출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그가 집필해온 논문 및 저서는 40여권에 이르며, 50여회의 학술발표회와 수영농청놀이, 가야 용신제 예능보유자 선정과 진주교방굿거리 평가 심의 및 부산무용제 심사 그리고 경상남도 문화상 심사, 동아국악콩쿨 심사 및 부산광역시 문예진흥기금사업 무용부문 심사와 영산제심사 등 160여회의 문화재 및 무용심사 경력이 있습니다.



## 안무의도

### 제1장 : 바다도 춤춘다.

- 유년의 꿈은 피어나고

나는 바다의 새벽에 먼동이 터 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어린 시절 나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왠지 자꾸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것은 바다에 젖어드는 그리움 하나  
누군가 두 손을 꼭 잡아주고, 포근하게 안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를 찾아 드나들던  
그 곳엔 항상 춤이 있었다. 마음 밭에 깊게 뿌리 내린 나의 어머니  
목베어 불러보기도 전에 활짝 열린 잔인한 입 속으로 빨려 들어 가셨다.  
한참을 울었고 돌아보니 어느새 꽃이 피고 눈이 내리고  
나는 훌쩍 자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었다.

### 제2장 : 통영복소리, 내사랑 승전무

- 청춘의 숨결이여

꽃다운 나이 20대 굵디고운 한삼자락에 혼을 담아 춤에 묻혀 청춘을 불살랐던 시절...  
자주, 연두, 노랑, 초록, 남, 분홍, 파랑, 빨강, 흰색의 한삼이 저마다 가진  
빛깔을 드러내며 몸부림치듯 춤을 춘다.  
태양의 밝음과 창조, 젊음, 희망을 노래하는 청색한삼이 춤추고  
정열과 애정, 용기를 담은 적색한삼, 진실과 순결을 머금은 백색한삼이  
춤을 춘다. 사랑, 아름다움, 그 많았던 삶의 진한 유혹들이 손 안에 움켜진  
방울소리에 묻히고, 승전무 춤사위 속에서 상생 상극하며 화려한 꽃을 피워 낸다.  
청춘을 불태우며 땀으로 엉긴 몸짓들이 원향의 뜰에 향 맑은 수액으로  
넘쳐나며 목살 메인 울음을 운다.

### 제3장: 봉황의 비상

- 내 눈이 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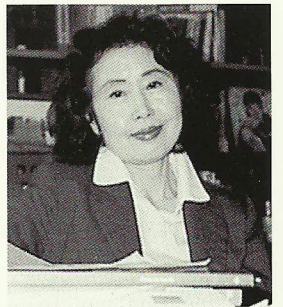
40여년 승전무를 노래하니 그 생의 향기가 서럽고도 은은하다.  
흩날 털어내자 이미 기(氣) 덩어리로 변화된 내 모습  
승전무 속에 녹아내린 내 인생, 우렁차게 다가오는 복소리  
영혼의 소리가 들린다.  
이젠 내가 봉황이며 승전무가 봉황이다. 나의 혼도, 제자들의 혼도,  
겨레의 혼도 거대한 춤 승전무 춤사위에 녹아드니 자자손손 울려 퍼질  
그 날을 위해 나 이들과 함께 천세토록 울려 퍼지는 춤을 추리라.





# 몽황되어 춤을 추리

원향(遠香) 엄옥자 선생을 노래하다.



月藝 金 亭 子 (시인, 문학평론가, 부산대학교 교수)

## 1. 바다도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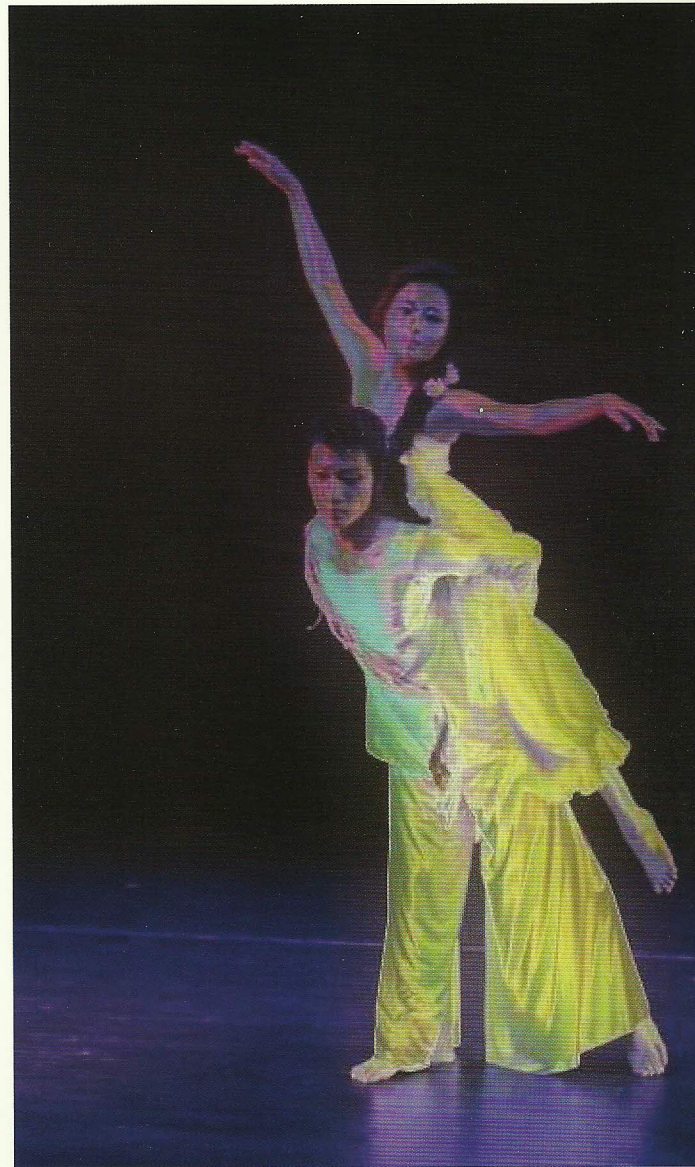
- 유년의 꿈은 피어나고

아이야,  
강구안 바다 물결  
햇빛 쏟아진다

날개 펴고 둥실둥실  
구름인 양 춤을 추자

엄마 주신 비단 옷자락  
눈물 씻고 팔랑인다  
천사도 내려와서  
꽃씨를 뿌려준다

아이야,  
나비처럼 나풀나풀  
꽃들도 춤을 추고  
바다도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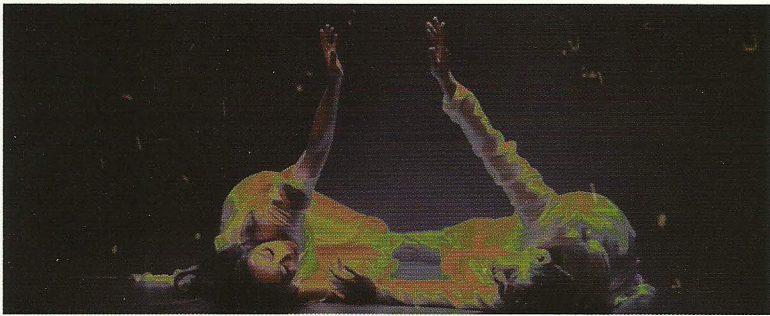


## 2. 통영 북소리, 내사랑 승전무

- 청춘의 숨결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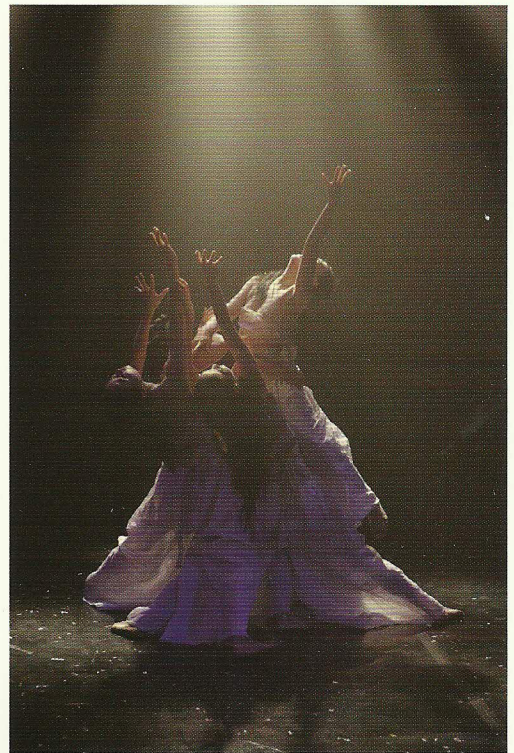
통영북춤 신들리며  
승전무를 길러내고  
26세 꽃다움에 인간문화재

춤추는 그대 인생  
음막집, 지하창고도  
북소리의 천국이다.



뜨거운 그대 춤걸  
청춘을 불태우고  
눈물과 땀으로 영긴  
비천녀(飛天女)의 몸짓

그대 뜰에  
향맑은 수액으로 고여 넘치는  
무천(舞天)의 생명이여





### 3. 봉황의 비상(飛翔)

- 내 눈이 열리고

칼노래 넘어  
그대 날개 펼치고  
천상으로 뜨는  
세월 속의 여인인가

먼 곳 생의 향기  
서럽고도 은은하다

한 세상 다하여도  
다시 또 춤을 추리



태평무 어지러운 발사위도,  
살풀이 맺힌 슬픔 솔솔이 풀어내고  
북소리 명장한 하늘  
겨레 혼도 춤을 추리

원향이어,  
그 북채 놓지 말고  
봉황되어 춤을 추라

이땅에 승리의 '지화자'  
천세토록 올려 퍼지시라





총괄감독. 출연 엄옥자



안무. 출연 변지연



김운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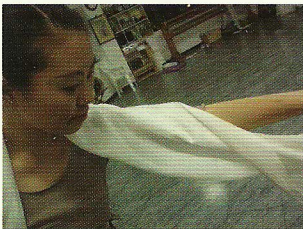
이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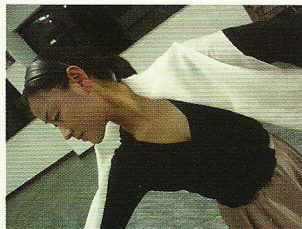
유년시절 원향  
이전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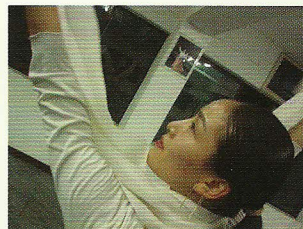
20대 원향  
김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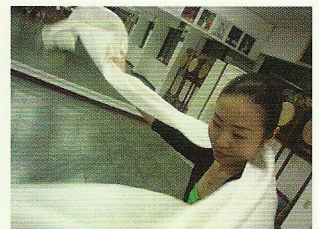
조원주



강민정



장아림



조수미



성미진



강정일



박소영



조혜실



김경진



박미



조혜림



정원미





박은수



김완수



박근수



김선영



신은숙



구지연



박숙희



이정애



문영희



김양지



하순연



구영순



이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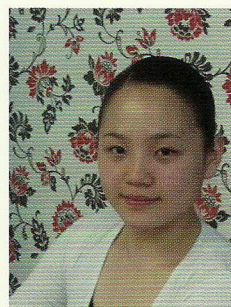
조수빈



정가희



박은정



허진화



곽세영

### 배역

- 어머니: 변지연
- 가롱빈가: 김운옥
- 자연의 아버지: 이동재
- 꽃의 어머니: 박소영
- 날개의 신: 연무용단
- 정화의 신: 무천 무용단



장혜원



홍예지